

## IPTV와 와이브로 연착륙에 힘을 모으자

빛을 따라 어두운 동굴에서 탈출해 자신을 항상 따라다니던 존재가 결국 빛에 의해 저절로 생기는 그림자임을 깨우친 것은 인간의 주어진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향한 본능 때문이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노력한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비즈니스 성패는 시공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로 귀착될 경우가 많다.

정보 기술은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온 디맨드 기술은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모바일 기술은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최근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라는 TV포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시작했다. TV포털 서비스는 IPTV의 전 단계로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온 디맨드 방식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가정마다 거실에 있는 TV에 IP가 부여되어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 상거래와 RPG게임을 마우스 대신 리모콘으로 즐길 것이다. 방송의 주도권이 서비스제공자에서 이용자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의 스프린트넥스텔·인텔·모토로라와 와이브로 상용화에 대한 전략적 제휴 계약을 맺었다. 정보기술의 최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국내 원천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월드컵 4강만큼이나 흥분되는 사건이다.

IPTV나 와이브로는 정보통신부의 UIT 839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위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이며 시공간의 제약을 해결하는 첨단 정보 기술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갈 기관차다. IPTV와 와이브로라는 기관차는 시스템·솔루션·콘텐츠라는 객차를 줄줄이 붙여 대한민국이라는 승객을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목적지까지 안착시킬 것이다.

IPTV 서비스 시대가 올해를 기점으로 등장하면서 연간 서버 100대, 스토리지 400TB 이상의 신규 수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버·스토리지·솔루션 등 컴퓨팅 업계는 IPTV를 온라인게임에 이은 또 하나의 황금 시장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와이브로는 전세계적으로 2010년까지 11조 규모의 시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기관차들이 달려가는데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한 방송관련 단체가 하나TV에 대해 기존 VOD 규제와의 형평성, 성인물 및 저급 콘텐츠 문제 그리고 무분별한 해외 콘텐츠 유입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고, 이어 하나로텔레콤을 불법방송사업자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기된 사안은 IPTV와 관계없이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숙제다.

또한 지난달 특허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모바일콘텐츠 부문의 국내 출원 특허 중에서 62%가 외국인 소유다. 더욱이 내국인의 특허 출원 건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출원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는 와이브로라는 국산 플랫폼에 외국인 소유의 콘텐츠가 성행한다는 의미다. 이대로라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 가게 될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모바일콘텐츠 업계가 눈앞의 다운로드 수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에 따른 문제는 국내에서도 오랜 기간 갑론을박됐고, 최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준비단이 발족되어 통신과 방송 융합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이름에서 보듯이 방송과 통신이라는 용어가 위원회 명칭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양 진영의 뒷마당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하나TV 사건과 같이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구분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편견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선 추진위의 이름부터 융합시켜야 한다. 미디어융합추진위원회 쪽으로 바꾸면 어떨까.

IPTV나 와이브로는 우리나라가 선진 열강들과의 전쟁에서 맞설수 있는 경쟁력 있는 무기다.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시킨 다윗의 돌팔매같이 우리나라 정서에 가장 적합한 무기인 것이다. 다윗이 돌팔매 대신 칼이나 창으로 대결했다면, 힘센 거구의 백전노장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오랜 경기 침체 중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면 앞서 나가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관련 정부 부처는 힘겨운 일전을 앞 둔 사업자의 전의를 꺾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편집장 이 창 한